

'24년 제2차 인천지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에 23개사 선정

-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컨설팅, 기술 지원 및 마케팅 분야 서비스 지원(기업당 최대 5,000만원)
- 인천지역 특성을 반영해 기획한 지역 중소기업 성장 프로젝트(레전드 50+)에 선정된 23개 사에 총 8억 4500만원 지원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강해수, 이하 인천중기청)은 2024년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사업 2차 모집에서 지역 성장 프로젝트 레전드 50+에 선정된 23개 사를 우선 선정해 총 8억 4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의 분야별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인천 특화산업인 모빌리티 분야 「레전드 50+」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신속한 선정·지원을 위해 현장평가를 면제하고, 서류평가만으로 지원기업을 우선 선정했다.

* 「레전드 50+」 :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기획한 지역중소기업 성장 프로젝트를 중기부가 자금·바우처 등 패키지로 지원하는 새로운 지역중소기업 육성 모델

강해수 인천중기청장은 “레전드50+ 기업을 인천지역 경제를 견인할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책임자	과 장	신훈목 (032-450-1151)
		담당자	팀 장	손민국 (032-450-1143)
			주무관	강진구 (032-450-1155)